

무등산 해맞이 행사 공익목적 아니면 못한다

국립공원측, 인파 몰려 안전사고·자연훼손 우려 1월 1일 적십자사 무료 떡국나눔행사 만 허용 시민사회단체·민간기업 등 모든 행사 불허키로

내년부터 무등산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해돋이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해맞이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 이외의 개인·민간단체 성격의 행사에 대해선 불허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9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무등산 장불재와 중심사 등에서 희망봉선 날리기·떡국 및 커피 나눔행사 등 새해 해돋이 행사를 하겠다는 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민간기업 등의 접수문

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의 전화는 하루 평균 대략 5~6통. 하지만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1월 1일 무등산 중심사 탐방지원센터 앞길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사 주관의 무료 떡국나눔 행사를 제외하고 일체의 모든 행사를 불허했다.

행사장소가 협소한데다, 해돋이 인파가 대거 몰릴 경우 안전사고 및 자연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은 무등산에서 수만 명

의 해돋이 인파를 대상으로 각 기관·단체를 홍보하기 위해 무료 떡국 나눔행사 등을 열었다 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각종 행사를 제한해왔다.

시민사회단체 등 사에선 아쉽지만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오는 1일 장불재에서 무료 떡국나눔 행사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의 얘기를 전해 듣고 행사를 포기했다”며 “회원들간 산행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초 해돋이엔 3만6200명이 왔었는데, 새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홍보 목적의 개인·민간단체의 행사는 제한하겠지만 탐방객 수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해 첫날인 오는 1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는 보지 못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광주·전남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이어진 비 또는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서 해돋이 관측이 가능한 곳도 있겠다”고 29일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1~3cm 안팎.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2~5도가량 낮은 수치다. 이번 추위는 5일까지 이어진 뒤 6일부터 평년기온으로 점차 회복할 전망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해질 17:29, 달뜨기 13:11, 달지기 01:33

한낮엔 '따스한 햇살'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았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10	보성	맑음	-3/11
목포	맑음	2/10	순천	맑음	0/11
여수	맑음	5/12	영광	맑음	0/10
나주	맑음	-2/10	진도	맑음	1/10
완도	맑음	2/11	전주	맑음	-1/10
구례	맑음	-3/10	군산	맑음	1/8
강진	맑음	-1/11	남원	맑음	-4/9
해남	맑음	-1/11	홍산도	맑음	6/9
장성	맑음	-3/9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5	남서~서	0.5~1.5
남부	면바다	서~북서	1.0~2.0	남서~서	1.0~2.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서부	면바다(동)	서~북서	1.0~1.5	서~북서	0.5~1.5
	면바다(서)	서~북서	1.0~1.5	서~북서	0.5~1.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50
빨래	70

◇주간 날씨

31(수)	1/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	☁	☁	☀	☀	☀	☀
1/5	-5/1	-4/1	-3/4	-1/6	1/7	1/5

“세월호, 복원력 상실로 침몰”

해양안전심판원 8개월간 조사보고서 공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관계자 50명을 조사하고 현장 17곳을 방문하는 등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공표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가 내놓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세월호 사고 원인 등은 검찰에서 조사했던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장의 퇴선 지시와 관련, 보고서는 검찰 주장과 달리, ‘퇴선 지시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과 같은 의견을 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보고서에서 선사가 세월호를 들이치고 증축 등 개조된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했으며 선박검사기관의 승인 조건보다 출항 당시 화물은 1156t을 더 실었고 선박평형수는 982t을 적게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연료유 등을 소모해 사고 당시에는 복원성이 더욱 나빠졌다.

보고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지나치게 큰 각도로 타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타로 선체가 15~20도기량 원쪽으로 기울

었고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흘러 복원력을 상실한 이후 비탈물이 선체로 유입돼 결국 침몰한 것으로 결론냈다.

특히 선장의 퇴선 지시와 관련, 보고서는 “1등 항해사가 선장에게 ‘승객들 탈출시키니까’라고 물어보자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고 해라’라고 선장이 대답하였다”면서 선장 퇴선 지시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과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보고서는 “선장 등 선원들이 여객을 퇴선 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협수로’ 논란이 제기됐던 맹골수로에 대해서도 “좁은 수로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해경의 부실한 구조활동과 관련해서는 “대형 선박 사고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 대응체계가 부족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아울러 사고 재발

을 막기 위해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화물 고정상태 확인 강화, 여객선 선박직원 자격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 듬뿍 담긴 '떡국떡' 29일 광주시 북구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이웃돕기 떡국떡 판매행사'에 참여한 동 주민센터 직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회원들이 주민들에게 판매할 떡국 떡을 포장하고 있다. 수익금 전액은 독거노인·조손가정 등 저소득층을 위해 쓰인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보행용 전동차 타고 車 전용도로 지나던

70대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에 무죄 선고

광주지법 “운전자 주의 의무 소홀 단정 힘들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자신의 차량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던 A(7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나주시 평산동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광주방면으로 자

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통상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김씨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사고를 막기 위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보도’를 통행해야 하지만 A씨는 10~15km 속도로 전용도로 1차로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치우쳐 지나가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앞선 차량이 A씨를 발견하고 차선을 바꾼 뒤에야 김씨가 A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했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천연설탕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무료배송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다이어트 효과
5. 항암효과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설탕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영빌딩 603호 네이처코미